

#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역사의 단면 담아...”

●심영의 작가 소설집 ‘그날들’, 장편소설 ‘연안의 노래’ 출간



“지난 세월 잊혀져선 안 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써온 글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비극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희생자를 기리고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심영의 소설가

## 현대사 비극 담아낸 단편부터 항일운동가 정율성 일대기까지

1994년 ‘전남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2000년 ‘광남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에 당선, 작품활동을 이어가며 오랫동안 대학 안팎에서 인문학을 강의해온 심영의 작가의 신간 2권이 최근 출간됐다. 도서출판 푸른사상에서 펴낸 소설집 ‘그날들’과 장편소설 ‘연안의 노래’다. 소설집 ‘그날들’은 현대사의 비극을 그린 다섯 편의 단편소설과 고려 몽골 침략기 삼별초 항쟁을 조망한 중편소설까지 총 여섯 편 소설을 엮은 책이다. 제호를 ‘그날들’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작가는

누군가는 잊기를 바라지만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는 비극적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가는 시대의 파란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소설로 끌어안으며 그날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오늘 역사의 되살리고 있다. 책에는 등단작인 ‘방어할 수 없는 부재’와 제1회 5·18문학상 수상 작품이자 2012년 발간돼 제1회 5·18문학상에 수록된 소설 ‘그 희미한 시간 너머로’가 실렸다. 두 소설 모두 5·18 이후의 비루한 우리 모습을 성찰하는

작품이다.

아울러 제1회 부마항쟁기념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인 ‘누가 남아 노래를 부를까’를 비롯해 부마항쟁 관련 소설 ‘꽃도 심자가도 없는’와 1948년 여순 사건을 조망하는 ‘얼룩을 지우는 일’이 수록됐다.

특히 책 맨 마지막에 수록된 중편소설 ‘그 밤의 붉은 꽃’은 이 소설집에 실린 중·단편 중 우리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룬다. 작가는 삼별초 항쟁을 소재로 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전란에 휩싸여 그것을 감당해야만 했던 무고한 이들의 고통과 슬픔에 주목했다.

장편소설 ‘연안의 노래’는 정율성 일대기를 다룬 책이다. 지난해 박선홍 광주학살상을 수상한 작가는 저술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던 중 양림동 근대화역사마을에 대해 조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정율성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다.

“지난해 정율성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가 많았잖아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념적으로만 접근하려는 행태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어섭니다. 친일 행

위를 한 것도 아니고,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교조주의, 개인 숭배에 결코 동의하지도 않았던 그를 소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죠.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불굴의 항일 전사이자 뛰어난 음악가였던 정율성의 삶을 재복원해보자는 의도에서요.”

최근 작가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부랑아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폭력을 일삼은 목포 고화도 감화원 사례와 조선 청년과 결혼해 해방 이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 여성들의 안식처가 된 경주 나자레원 등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구상 중이다.

오랜 시간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루으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글쓰기에 매진하고 있는 그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요즘엔 저마다 사는 게 바빠 내 삶과 연관되지 않으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결국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개개인의 일상 또한 안정되거나 행복할 수 없어요. 제 소설이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작은 토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최명진 기자

## 새로 나온 책



▲눈물학=박홍임 저자  
40년 넘게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박홍임 씨의 첫 번째 시집 ‘눈물학’이 발간됐다. 3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총 54편 시가 수록돼 있다. 표제작 ‘눈물학’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단절됐던 시기 3년간 골방기도를 하며 눈물로 회개한 저자의 지난 날들이 담겨있다. 눈물 닦은 휴지가 바다에 쌓인 모습이 마치 천년학과 같았다는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애 첫 시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믿음생활을 이어가며 틈틈이 쓰시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은1만원



▲언제나 3월에는=신복순 저자  
2007년 ‘월간문학’ 동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한 신복순 시인이 신간 ‘언제나 3월에는’을 발간했다. 동시신문집인 이번 시집은 동시와 짧은 산문, 작은 그림이 함께 수록돼 있는 책이다. 자연현상이나 주변 소소한 이야기에 삶의 성찰을 담아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읽기에 좋다. 저자는 “50편 시에 산문을 덧붙이며 다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며 “시 한편 한편에는 이별하는 슬픔,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 생명의 신비로움을 경이하는 마음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브로콜리숲·1만3천원



▲행운이 꾸르는 속도=김성운 글, 김성라 그림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소원으로 삼기 마련이다. 만일 황폐어를 타는 어린이 앞에 캠프의 요정이 나타난다면, 그는 무슨 소원을 빌까. 단번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 작품은 그 편견을 유쾌하게 넘어선다. 주인공 하늘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곁에는 하늘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언제나 어디서든 함께 하는 친구들, 아이가 사회에서 겪을 불편함을 같이 고민하는 이웃들이 있다. 그들 덕에 하늘이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어린이로 성장해 간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하늘이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나면 독자들은 내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사계절·1만3천원



▲즐거운 어른=이옥선 저자  
여기, 76세인 지금을 ‘팔자가 늙어진 최고의 인생 한 시절’이라고 표현하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을 최대한 즐긴다. 그야말로 카르페 디엠’을 외치는 할머니가 있다. 기세 좋게 갈갈한 유머를 구사하는 이 ‘즐거운 어른’에게 노년의 인생은 황혼기가 아니라 황금기다. 70대에 머리로 물구나무서기를 연습하며 세상을 뒤집어 탈탈 털어보고, ‘유튜버 선생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이 어른이 씩씩한 기상으로 세상을 유영하는 법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이야기장수·1만6천800원

# 그리움·사랑으로 빚어낸 삶의 단상을 노래하다

박은영 시집 ‘가난한 당신의 문장’ 출간...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희망을”

어머니와 무등, 사랑... 일상 속 여러 사물을 소재로 삶의 단편들을 노래한 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박은영 (사)동행 문학지교 나눔공동체 대표가 펴낸 5번째 시집 ‘가난한 당신의 문장’ (글동네)이다. 총 5부 120여 편이 담긴 이번 시집은 박 대표가 일상 속 보고 듣고 느낀 삶의 표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시집 첫머리를 장식하는 ‘서시’에 이어 주위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을 떠올리며 쓴 ‘동행’, 떠올리지만 해도 심금을 울리는 ‘징소리’ 등 작품이 1부를 채운다.

2부 제목이기도 한 ‘그대에게 가는 길’은 차를 달이는 시간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글이다.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떠올리는 그리움의 서정이 돋보인다. 3부 ‘바람꽃’에서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시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꽃을 위한 노래’, ‘무등’, ‘가을의 연가’ 등 꽃과 나무, 낙엽진 가을 풍경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4부 제목이자 표제작인 ‘가난한 당신의 문장’은 시인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써내려간 시다. 언급하셨지만 자식들에게 한없이 따뜻했던 살아생전 아버지를 셋째 딸인 시인



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5부 ‘저 벽을 넘어’에선 그리움, 사랑의 감정이 읽힌다. 지금까지 시인이 걸어간 인생,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애뜻함을 투영해낸 ‘그리움’ 연작, ‘봄길’ 등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박은영 대표는 “이번 시집이 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인생의 회로예락이 깃든 시 한편 한편엔 당시의 절절한 이야기가 묻어나왔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김중 시인은 평생을 통해 ‘박 시인의 이번 시집 주제는 ‘어머니’와 ‘무등’에 모아지지 만 이에 매이지 않는 활달함으로 주변 여러 사물을 차별없이 노래한다는 점에서 그 성과는 가히 풍작이라 할 수 있다”며 “또 하나의 주제인 ‘사랑’은 주변 사물에 걸친 우주적 감성 내지는 삼라만상을 상대해 얻어낸 자발한 자장가이기도 하다. 그가 펼쳐낸 다음의 시적 향방이 매우 기대된다”고 평했다. 한편 박 대표가 몸담은 (사)동행 문학지교 나눔공동체는 문학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비영리단체로 매년 문학지 발간,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오는 10월 초 총창작제 기간에는 총창작방 및 문학지 출판기념회를, 11월19일 동구문화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동행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http://www.kjdaily.com)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풍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